

瓶窩의 現實認識과 詩世界 研究

오용원*

|| 차례 ||

1. 緒言
2. 삶의 意識的 指向과 出處觀
3. 行藏과 出處의 詩的 形象化
 - 1) 出處에 대한 認識
 - 2) 處士의 삶의 內面世界와 自樂
4. 結論

【국문초록】

瓶窩 李衡祥(1653~1733)은 조선조 후기의 문신이며, 각양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학자이다. 그는 12년간의 관직 생활을 제외하고는 생의 귀의처로 永川에 浩然亭을 짓고, 이곳에서 저술과 후학양성을 하며 평생을 보냈다. 본고에서는 그의 삶의 지향과 處身의 문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그의 出處觀을 살펴보고, 한시 작품을 통하여 出處·行止·行藏·去就 등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규명해 보았다. 병외는 81세를 일기로 下世할 때까지 12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고, 그 가운데 4년간의 내직과 8년간의 외직 생활을 하였다. 그의 인생편력과 학문적 역량에 비취볼 때, 짧은 관직 생활과 외직으로 전전하게 된 것은 그의 출처관과 政爭의 현실 속에서 특정한 한 黨에 얽매이지 않았던 그의 黨色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는 삶의 출처를 논의하면서 孔子·顔回·伯夷·柳下惠·伊尹·甯武子 등의 삶을 예증하고, 다시 예증한 인물들의 삶을 春秋와 夏冬에 비유하여 자의식을 피력하였는데, 그가 규정한 가장 이상적인 行藏은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 時中의 출처이며, 中節에 맞는 출처인 것이다. 특히 그는 處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선

* 동국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비가 때를 만나지 못해 은거하게 된다면[處], 현실이 고달프고 궁핍할지라도 動하지 않고 靜함으로써 은자의 진면목을 잃지 않기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단적인 예로도연명을 예중하고, 귀래하여 편안함(安)을 잃지 않은 것은 時中の 은거와 궁핍한 삶 속에서도 動하지 않고 靜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병와는 도연명의 귀래한 은자적 삶과 현실인식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병와의 한시 작품을 살펴보면, 그의 出處 處, 그리고 三旌과 一瓢 등은 하늘이 만든 분수이기에 때가 있음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出處에서 時中の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浩然亭八幅」에서 중국 인물 가운데 출처에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傅說·姜太公·張良·諸葛亮·巢父와 許由·長沮와 桀溺·商山四皓·陸通 등을 예중하면서 부열·강태공·장량·제갈양 등은 출처한 네 유형으로, 소부와 허유·장저와 결익·상산사호·육통 등은 네 유형으로 향목화하였다. 만약 병와의 출처관이 자신의 주어진 현실 공간에서 은거에만 몰입했거나 아니면 은거만을 강조하였다면, 이 작품에서는 전적으로 은거한 네 사람만을 글감으로 하여 작품을 완성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時中の 出處를 강조하였고, 자신의 주어진 현실에서도 이를 실천하였던 것이다.

병와 한시에서 출처 문제와 관련한 또하나의 특징적인 자질은 處士의 삶의 內面世界와 그 自樂을 들 수 있다.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호에 은거한 그의 처사적 삶은 정치적인 패배로 인한 他意的 隱居가 아니었기에, 강호에서 휴식하면서 自足的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세속과 단절된 공간에서 나름대로 興趣와 自樂을 만끽하면서 自足하고 있다. 아울러 그가 탈속한 자신의 현실 공간에 최대한 몰입하면서 예사롭게 볼 수 있는 학을 자신의 현실공간에서 仙界의 학으로 오인하여 착각한 것은 현실공간을 선계 공간으로의 轉移이다. 그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仙界 내지는 鍊丹과 같은 도가적 은둔을 상징하는 것을 시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결국 이는 현실 공간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은일지향적 사고이며 초월적 의식세계이자 심지어 심적 화해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주제어】 出處, 行藏, 去就, 行止, 動靜, 自樂, 隱遁, 處士的, 脫世俗, 自足, 興, 仙界

1. 緒言

瓶窩 李衡祥(1653~1733)은 조선조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로서 12년간의 관직 생활을 제외하고는 永川에 寓居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창작저술과 후학양성을 하며 평생을 보낸 인물이다. 병화 「年譜」를 통하여 그의 人生 遍歷을 더듬어 보면, 그는 25세(1677년)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28세에 別試 文科에 급제하여 承文院에 들어간 이후, 內外職을 역임하며 出仕와 退休를 전전하였다. 48세(1700년)에 慶州府尹을 사임하고 자신과 연고도 없는 영천에 '浩然亭'을 짓고 이곳에서 평생을 마칠 것을 결심하게 된다. 물론 50세에 濟州牧使를 제수받아 잠시 머물렀지만, 파직된 이후에 영천의 호연정에 돌아와 하세할 때까지 약 25년동안 이곳에서 은거하며 평생을 보냈다. 그의 재능에 비춰본다면, 81세의 생평에서 12년간의 관직생활은 긴 시간이 아니었고, 그 가운데 내직 생활은 4년에 불과하다. 그의 宦路歷程이 이러한 데는 여러 곳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政爭의 와중에 자신이 직면해야 할 현실과 자신의 의식적 기저가 큰 몫을 차지했을 것이다.

병화의 博物學的인 학문 경향과 관심은 李象靖(1711~1781)이 찬한 『瓶窩集』 「跋文」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성리학자로서 經學과 禮學에 침잠하였고, 天文·地志·禮樂·數書·稗史小說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¹⁾ 그는 영천 은거시에 자신의 학문적 역량에 값할 수 있는 다량의 저작물을 남겼는데, 각양의 저작물이 모두 142종의 326책에 이른다. 이렇듯 그는 평생동안 다양한 소재를 글감으로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였지만, 그의 문학론을 천착할 수 있는 專著는 보이지 않는다. 간헐적으로 언급한 논의를 통하

1) 『瓶窩集』, 「附錄-跋」, 530面. “...公探究性理 枕肱經籍 自天文地志禮樂數書 以至幽經僻書稗史小說 靡不淹貫洞曉 而尤用功於彞倫親切之地 吉凶有家之體 以一心而涵萬象之多 以一身而擔天畀之重 規模廣大而力量悠遠...”

* 본고에서 인용한 『瓶窩集』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영인한 “李衡祥, 『瓶窩集』(韓國文集叢刊 제164책), 民族文化推進會, 1998.”이다.

여 그의 詩文論의 대체를 粗考해보면, 그의 文論은 以氣爲主論이다. 氣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班固나 史馬遷도 눈보라 속의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造金'이나 '假花'와 같은 지나친 技巧과 剽竊를 경계하였다.²⁾ 그리고 詩論에서도 理氣를 강조하였고,³⁾ 부화한 수식이나 화려한 꾸밈을 雕虫小技로 여기고⁴⁾ 시인의 수법을 잃지 않고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⁵⁾

지금까지 병와 연구는 『瓶窩 李衡祥 研究』⁶⁾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많은 자료와 포괄적인 연구가 소개되었고, 이후에 그의 文學⁷⁾·經學⁸⁾·書

- 2) 『瓶窩集』卷14, 「雙峯鄭公文集序」, 455面, “...大凡文章 以氣爲主 儒家以理爲談 氣苟不全 雖雄如班馬 不過爲衝雪之蝦蚶 理苟不純 雖快如儀 秦 亦未免得雨之淋漓 彼所謂氣者 光明正大 浩浩潑潑 而無是則僞矣 理亦至精至粹 不鑿不空 今夫操觚款牘之士 孰不欲粗撰剽竊 以自雄於理氣哉 然造金易碎 假花難工 一見可知其孰爲山孰爲市也...”
- 3) 위의 같은 곳, “...若夫詩 本德性而發 觸境噴情 傳神寫照者 亦理與氣而已 是故或渾圓而融洽 或昭曠而豪邁 或浮巧 或苦燥 或險怪 或詭酸 莫不隨其心之所感 以自畫於其聲 而抑其中有唐焉 有宋焉 何者 唐主於達性情 以興爲趣 宋偏於立議論 以賦爲訓 達性情者 固可謂國風之餘 而立議論者 亦不害二雅之變 固未易優劣也...”
- 4) 『瓶窩集』卷2, 「次兪州韻」, 214面, “...綠情鬧紅意 緜虎惱曹劉 亂蟬噪晉魏 線針縱自巧 摠爲雕蟲技 而我癖於此 剩嚼儲蜜嗜 酢盃傾楠榴 屠龍刻杉鬣 是皆快性具 諒非君子藝 奮欲修安宅 氣輒爲志帥...”
- 5) 2번 주와 같은 곳, “...誠使後之讀者 先究旨義 復尋路脉 且知其不失家數 不遺法度 則幾矣 不然則雖大獎 亦大駭耳 尙何謂知言哉...”
- 6) 權寧徹, 『瓶窩 李衡祥 研究』, 한국학연구원, 1978.
- 7) 백원철, 『瓶窩樂府小考』, 『공주사범대학논문집』 제22집 별책, 1984.
강진섭, 『瓶窩 李衡祥의 漢譯歌曲 小考』, 『국어국문학』 제102호, 1989.
김용환, 『瓶窩 樂府의 特性과 作家意識』,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부영근, 『瓶窩 李衡祥의 漢詩 研究』,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황태희, 『瓶窩 李衡祥의 樂府詩 研究』,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8) 권영철, 『樂學便考에 대하여』, 『도남 조운재박사교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76.
권오성, 『瓶窩 李衡祥의 樂論 연구』, 『한국학논집』 8, 1985.
송민선, 『瓶窩 李衡祥의 禮論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진갑곤, 『瓶窩 李衡祥의 詩經意識에 나타난 反朱子學的 요소』, 『한국의 철학』 제21호, 1994.

誌學⁹⁾ 등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연구 분야는 문학적인 측면에서 그의 樂論을 근거로 하는 樂府詩에 대한 고찰이다. 당대 누구보다 音樂과 樂府詩에 대해 이론적 실천적 경험을 쌓고 있었으며, 이러한 확고한 이론적 바탕 위에 작품을 선별하고 재창조해 나간 것과 그의 악론과 악부관이 그의 知友였던 息山을 거쳐 星湖에게 전수되었을 법한 가능성 등은 병와의 악부시에 대한 문학사적 위상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만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¹⁰⁾

본고에서는 기왕의 병와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몇 가지 문제를 따져 보기로 한다. 먼저 그의 삶의 지향과 處身의 문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出處觀을 『병와집』에 소재하는 각종 작품을 통하여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는 조선조의 여느 사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한시 작품을 남겼고,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출처 문제와 현실 인식을 토로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삶의 지향과 출처관을 한시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삶의 意識的 指向과 出處觀

병와는 81세를 일기로 下世할 때까지 12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고, 그 가운데 4년간의 내직과 8년간의 외직 생활을 하였다. 그의 인생편력과 학문적 역량에 비춰볼 때, 짧은 관직 생활과 외직으로 전전하게 된 것은 그의 출처관과 政爭의 현실 속에서 특정한 한 黨에 얽매이지 않았던 그의 黨色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평생 동안 그는 많은 창작물을 남겼다. 그 가운데 출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신중하였고, 실지로 이러한 자의

9) 연경아, 「瓶窩 李衡祥의 著述觀 연구」, 청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0) 황태희, 「瓶窩 李衡祥의 樂府詩 研究」,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60~61쪽 참조.

식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경우가 많았다.

…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양장(羊腸)이요, 공명은 의혈(蟻穴)이구나. 호랑이 가죽을 좋아하는 것과 서로 같으니, 살아서는 죽이고자 하고 죽게 되면 결국 칭송한다. 사람의 정이 고르지 않는 것이 한탄스럽다. 악(惡)은 드러나고 선(善)은 반드시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다. 부귀를 좋아하고 빈천을 싫어하는 것은 내 어찌 다른 사람과 다르겠는가? 안색을 꾸미고 기미(幾微)를 기다려서 타는 것에 대해 나는 세상에서 즐기지 않는다. 하물며 한 편의 글 중에 심사를 감추기가 어려운데, 백대 뒤에 공론이 비로소 나누어져 편언(片言)과 척자(隻字)를 장차 누가 속이라? 천추 만세에 분명히 나를 알아줄 것이다. 만약 후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칭송하기를, ‘고인의 행지(行止)를 본받았다.’고 한다면 다행스럽지 않으랴.¹¹⁾

병와는 49세(1699년)에 慶州府尹을 사직하고, 결국 그는 생의 마지막 歸依處를 永陽(永川)에 정하고 이곳에 호연정이라는 우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가 아무 연고도 없는 영양에 귀래하여 우거를 마련한 것은 세속과의 굳은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는 이곳에서 강호에 사는 은자의 삶을 즐기며 평생을 보내게 된다.

인용한 자료는 당시에 지은 「永陽寓居序」의 말미 부분이다. 그가 ‘천추 만세에 분명히 나를 알아줄 것이다.’라고 한 것과 ‘고인의 행지(行止)를 본받았다고 한다면 다행스럽지 않으랴’라고 한 것에서, 後人을 의식하면서도까지 얼마나 출처의 문제에 고민하고 신중했는지 엿볼 수 있다. 禮訟과 士禍의 당쟁이 끊이지 않았기에 험난한 당시의 世路를 그는 卍인 羊의 창자(羊腸)에 비유하였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얻은 功名이란 부실하기가 개미의

11) 『瓶窩集』卷14, 「永陽寓居序」, 449面. “…於乎 世路羊腸 功名蟻穴 好虎皮相似 生欲殺而死方稱 唉人情不均 惡斯揚而善必隱 樂富貴而悲貧賤 我豈異於人哉 巧顏色而乘機幾 吾不樂於世也 而況一篇中心事難掩 百代後公論始分 片言隻字將誰欺 萬世千秋應我識 使後世指點而稱曰 效古人行止則幸云”

집(蟻穴)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세상에 아첨하거나 시류에 편승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자신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자신의 行止, 즉 出處를 본받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출처관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세상에 나아가느냐 물러나 은거하여 수신을 하느냐 하는 길은 지극히 은미하여 오직 공자와 안연만이 가능하다. 대개 백이의 가을같은 포용은 지나치게 엄숙한 까닭에 우뚝하며, 유하혜의 봄같이 온화함은 홀로 피기 때문에 평온하며, 이윤의 가을과 여름같은 양열은 때를 맞춘 까닭에 위대하다. 공자는 사시(四時)라, 우주와 펼쳐어 헤가 장차 비추임에 열고 닫음이 모두 중절을 따른다. 영무자는 다만 겨울에 입는 옷 밖엔 없었으나, 이 또한 능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의 어리석음에는 미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한 가지에 자신을 깨닫기 하는 선비가 화복(禍福)에 움직이지 않고 이욕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궁벽한 산속에 있는 기화(奇花)에 불과하니, 처음부터 신하의 의리라고 말할 만한 것이 아니다. 세대에 민감하고 이해에 밝아 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의리로서 군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파리처럼 구질하고 개처럼 아부하는 가련한 것들이라 책할 만한 것도 못된다.¹²⁾

인용한 예문에서 병외는 삶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孔子·顔回·伯夷·柳下惠·伊尹·甯武子 등의 삶을 예증하고, 다시 예증한 인물들의 삶을 春秋와 夏冬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선인들이 출처를 논할 때면 으레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공자·안회·백이·유하혜·이윤·영무자 등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백이와 숙제는 孤竹君의 두 아들로써 고죽군이 죽을 적에 숙제를 왕으로 세우라고 遺命하고 죽었다. 고죽군이 죽고

12) 『瓶窩集』 卷, 「行藏辨」, 426面. “行藏之道至微 惟孔顏可能 蓋伯夷之秋容太肅 故高 下惠之春溫獨發 故穩 伊尹之涼熱得時 故大 夫子四時也 寔宇之舒日將泰 開闔皆隨節 甯武子特寒裘而已 然此亦難能 故曰其愚不可及 一種自潔之士 不動於禍福 不爲利欲所誘者 不過窮峽中奇花 初非臣義之可論 若夫工於燥濕 巧於得失 不知廉恥爲何物 不以理義愛君父者 蠅之營狗之苟 可憐不可責”

난 이후에 숙제는 왕위를 백이에게 양보하려고 하였지만 백이는 고죽군의 유명을 어길 수 없다 하고 도망가게 된다. 결국 숙제도 왕위에 서지 않고 도망갔지만, 백성들에 의해 숙제가 왕위에 올랐다. 훗날 武士이 紂를 정벌한 것에 대해 扣馬而諫하다가, 결국 수양산에서 굶어 죽게 된다.¹³⁾ 그리고 악한 사람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았고, 악한 사람과는 함께 어울려 말조차 하지 않았으며, 무식한 시골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때 만약 冠이 바르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에 물들까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다.¹⁴⁾ 결국 백이와 숙제의 이러한 삶을 공자는 '賢者辟世'라고 하였다. 이는 단순히 세상을 피하여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에 도가 없으면 志操를 지켜 은둔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와는 백이의 풍성하게 수확하는 가을의 넉넉함과 같은 포용을¹⁵⁾ 지나칠 정도의 지조에 비유하여 '秋容太滿'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반하여 유하혜는 보잘것 없는 임금을 섬기는 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작은 벼슬이라도 낮게 여기지 않아서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자신의 도를 굽히지 않고 자신의 도리를 다하였으며, 벼슬에서 추방되어도 원망하지 않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도 근심하지 않았다.¹⁶⁾ 병와는 유하혜가

13) 『論語』, 「述而」, “伯夷叔齊 何人也 曰古之賢人也 曰怨乎 曰求仁而得仁 又何怨 出曰 夫子不爲也

伯夷叔齊 孤竹君之二子 其父將死 遺命立叔齊 父卒 叔齊遜伯夷 伯夷曰父命也 遂逃去 叔齊亦不立而逃之 國人立其中子 其後武王伐紂 夷齊扣馬而諫 武王滅商 夷齊恥食周粟 去隱于首陽山 遂餓而死 怨猶悔也 君子居是邦 不非其大夫 況其君乎 故子貢不斥衛君 而以夷齊爲問 夫子故之如此 則其不爲衛君 可知矣 蓋伯夷以父命爲尊 叔齊以天倫爲重 其遜國也 皆求所以合乎天理之正而即乎人心之安 既而各得其志焉 則視棄其國 猶敝糶爾 何怨之有 若衛甞之據國拒父而唯怨失之 其不可同年而語 明矣 程子曰 伯夷叔齊遜國而逃 諫伐而餓 終無怨悔 夫子以爲賢 故知其不與甞也”

14) 『論語』, 「公冶長」, “子曰 伯夷叔齊 不念舊惡 怨是用希 伯夷叔齊 孤竹君之二子 孟子稱其不立於惡人之朝 不與惡人言 與鄉人立 其冠不正 望望然去之…”

15) 위의 같은 곳, “…若將浼焉 其介如此 宜若無所容矣 然其所惡之人 能改即止 故人亦不甚怨之也…”

세 번씩이나 환로에서 추방을 당하여도 그 곳에서 떠나지 않고 辭氣에 온화함이 있는 것을 따뜻한 봄날에 비유하여 ‘春溫獨發’이라고 하였다. 이운은, 어느 임금을 섬긴들 내 임금이 아니며 어느 백성을 부린들 내 백성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세상이 다스려져도 관직에 나아가고 혼란해져도 관직에 나아갔다.¹⁷⁾ 그래서 그는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堯舜의 은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다.¹⁸⁾ 이운의 이러한 삶에 대하여 병외는 ‘涼熱得時’라고 하면서, 그의 출처가 위대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영무자는 衛나라의 文公과 成公 때에 벼슬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세상에 나아가 관직생활을 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물러나 몸을 보전한다. 하지만 영무자는 나라가 태평한 文公 때는 슬기롭게 다스려 충성을 다하였고, 나라가 어지러운 成公 때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온갖 어려운 일을 처리하여 결국 태평을 되찾게 했던 충신이었다. 그래서 공자도 그의 지혜로움은 따를 수 있지만, 그의 어리석음은 누구도 따를 수 없다고 하면서 愚한 그의 충성에 감탄한 바 있다.¹⁹⁾ 병외도 영무자의 우직함[愚]을 높이 평가하면서 세인이 쉽게 미칠 수 없음을 말하였다.

공자는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며 오래 머물 만하면 오래 머물고 빨리 떠날 만하면 빨리 떠나는 출처를 행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백이·유하혜·이운 등의 출처를 어떤 한 계절에 비유하여 평가한 데

16) 『孟子』, 「公孫丑章句上」. “柳下惠不羞汚君 不卑小官 進不隱賢 必以其道 遺佚而不怨 阨窮而不憫 故曰爾爲爾 我爲我 雖袒裼裸裎於我側 爾焉能洗我哉 故由自然與之偕而不自失焉 援而止之而止 援而止之而止者 是亦不屑去已”

17) 『孟子』, 「公孫丑章句上」. “…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進 伊尹也…”

18) 『孟子』, 「萬章章句上」. “思天下之民 匹夫匹婦 有不被堯舜之澤者 若己推而內之溝中 其自任以天下之重如此 故就湯而說之 以伐夏救民”

19) 『論語』, 「公治長」. “子曰 寧無子 邦有道則知 邦無道則于 其知 可及也 其愚 不可及也”

비하여 공자를 四時에 비유하였고, 세상을 비추는 해처럼 넉넉하고 자연스러워 병와는 이를 '舒日將泰'라고 하였다. 그래서 開闢, 즉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나기를 절차에 맞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병화가 공자·안희·백이·유하혜·이운·영무자 등의 출처를 논의하면서 맺은 결론은 무엇인가? 그는 선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出(行)이나 處(臧) 가운데 한 가지에만 자신을 깨끗이 하면서 禍福에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利害와 욕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깊은 산속에 고고하게 핀 기이한 꽃(奇花)이라 비유하면서 이는 진정한 신하의 의리가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이보다 더 심하게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염치도 없이 이해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은 파리의 행위(蠅之營)나 개의 구차스러움(狗之苟)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심지어 책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병화가 인식한 가장 이상적인 行藏은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 時中의 출처이며, 中節에 맞는 출처인 것이다.

이렇듯 병와는 출처의 문제에서 中節과 時中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處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時中에서 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처음 웅이 산 속의 깊은 곳에서 궁핍하게 살 때, 금옥(金玉)을 파서 모래에 섞듯 관직을 버리고 쟁기를 잡아 생활하면서 체소나 소금 조차로도 끼니를 잇지 못하고 갓옷과 털옷을 입기도 어려웠으니, 어찌 거의 어려운 정도가 아니겠는가? 오직 고요함을 편안하게 여겼다. 아! 동(動)이 해가 되는 것을 나는 알겠구나. 때가 오면 구름처럼 날아 다니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고달프게 떠돌아 다니며 힘들게 오관(五官)을 수고롭게 한다. 그 실수하게 되어서는 두려움과 궁핍함으로 그 참됨을 잃게 되니, 이러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동(動)할뿐이지 정(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⁰⁾

20) 『瓶窩集』 卷13, 「題易安齋記後」, 430面. “…始翁之窮於峽也 屈金玉而混沙 謝簪笏而秉耒 糞鹽不繼 裘褐難充 豈不憂憂乎難哉 惟其靜也 是以安之 噫 動之害 我

인용한 자료는 參判을 지낸 權瓊이 春川에 '易安齋'라는 寓居를 짓고 은거하고 있을 때, 易安齋 記文의 뒤에 병와가 쓴 「題易安齋記後」의 일부이다. 인용문에서 병와가 언급하고자 하는 대체는 바로 관직을 버리고 은거한 선비가 현실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處를 動靜의 문제와 결부시켜 논의하고 있다. 靜은 마음이 함부로 動하지 않는 것이고, 動하지 않기 때문에 처한 바에 편안할 수 있다. 권경은 화려했던 지난날 환로의 명리를 버리고 깊은 산속에서 채소나 소금으로도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의 궁핍한 삶 속에서도 현실의 고요함(靜)을 편안히(安) 여기며 유유자적하였다. 만약 권경이 때를 만나지 못하여 관직을 버리고 은거하면서 고달프고 궁핍한 삶 속에서 靜하지 못하고 動하였다면 處의 참됨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병와는 선비가 때를 만나지 못해 은거하게 된다면(處), 현실이 고달프고 궁핍할지라도 動하지 않고 靜함으로써 은자의 진면목을 잃지 않기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출처관은 다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웅은 이른바 귀거래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섯 말의 쌀 때문에 허리를 굽히려 하지 않았고, 강항령(强項令)도 역시 다시 그렇게 하였으니, 조정에서 불러들이기를 엿보는 선비의 마음이겠는가? 새마(塞馬)이면서도 형둔(亨屯)에 견주어 맹중(孟甑)이면서도 득실(得失)을 나란히 하니, 동쪽 언덕과 서쪽 밭이랑은 거닐기에 편안하고, 국화 울타리와 소나무 길은 듣고 바라보기에 편안하다. 뜰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기쁜 얼굴을 하고, 거문고와 책의 즐거움 속에서 근심이 사라져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우니 편안하고 술병 있는 술로 잔질하여도 편안하다. 위태롭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쉬운 것은 마치 여유있게 칼날에 여지(餘地)가 있는 듯하고, 큰 물고기가 대학(大壑)을 종횡하는데 푸른 물결과 밝은 해가 물고기를 위해 오르내리는

知之矣 時至則雲飛 不逢卽蓬壘而行 屹屹勞五官 及其失之也 怵迫喪其眞 此無他焉 動耳非靜也…”

듯하다. 하물며 운조나 천목에 비유한다면 더욱 그 정취의 담담함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니, 대략을 들어 말하면 대부분 정(靜)에서 나온다.²¹⁾

인용한 자료는 관직을 버리고 자연을 벗삼아 은거하면서 動하지 않고 靜함으로써 은자의 진면목을 잃지 않는 삶을 영위한 陶淵明을 예로 들면서 그의 動하지 않은 은자의 편안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연명은 젊어서 큰 뜻을 가졌고 博學能文한 그였기에 糊口之策으로 다섯 번이나 관직생활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彭澤丞을 사직하면서 「歸去來辭」를 짓고는 전원으로 돌아갔다. 선비라면 누구나 출처의 문제 관심을 가졌고, 자연으로 귀래한 은자를 언급할 때면 으레 도연명은 은자의 상징물이었고, 병와 역시 그의 은자적 삶을 높이 평가하였다. 인용문에서 병와는 도연명을 진정한 은자로 자리매김하는 데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은자적 삶을 영위한 도연명이 전원에서 眞樂을 享有하고 謳歌할 수 있었던 까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도연명이 궁핍한 삶 속에서도 동쪽 언덕과 서쪽 밭이랑을 산보하는 데 편안할 수 있고, 국화로 만든 울타리와 소나무가 울창한 오솔길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편안할 수 있고, 타는 배와 잔질하는 술자리가 편안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편안함(安)은 그의 時中의 은거와 궁핍한 삶 속에서도 動하지 않고 靜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병와는 도연명의 이러한 귀래한 은자적 삶과 현실인식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21) 위의 같은 곳, “若所謂歸去來者 翁以爲何如人耶 不肯爲斗米折腰 強項令亦復爲之 烏以噉微土心哉 塞馬而視亭也 孟轍而齊得失 東阜西疇 步蹠之安也 菊籬松逕 耳目之安也 顏怡於庭柯之暝 麴消於琴書之樂 以至舟於流而安 觴於壺而安 其所以不危而安 不難而易者 若恢恢乎刃有餘地也 若巨魚縱大壑 而噴波麗日 爲之下上也 況其雲鳥泉木之喻 尤足以想其趣之淡淡 而樂而言之 均出於靜…”

3. 行藏과 出處의 詩的 形象化

병와는 평생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창작물을 남겼고, 『瓶窩集』과는 별도로 이를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가운데 병와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창작물은 漢詩, 樂府, 箴, 銘 등이 있다. 병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다.²²⁾ 다른 시인들과 비교해 볼 때, 그의 한시 작품은 詩的 資質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그는 사물을 관조하고 자신의 심상을 시적으로 표현한 景物詩가 적은 편이다. 그런 반면에 현실 주변의 小事와 苦惱와 葛藤 등을 다양한 典故나 故事를 과도하게 인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작품이 많다.²³⁾ 둘째, 그의 한시 작품은 사회의 여러 모순상과 그로 인한 민생의 고난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를 작품화한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이러한 참여적 社會詩의 결여 역시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다른 작가에 비해 輓詩, 送別詩, 次韻詩가 많은데, 이 또한 그의 삶, 굴절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많지 않은 그의 景物詩 가운데, 특정 지역을 소재로 하여 경물을 노래한 連作詩가 많다. 특히 그는 永川에 浩然亭을 짓고 은거하면서 호연정 주변의 경물에 구획마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여 많은 수의 連作詩와 長篇詩를 창작하였다. 여섯째, 유학의 이치를 논하는 說理詩 내지는 哲理詩가 많다. 이는 그가 남긴 창작물 가운데 性理說과 經說에 관한 논저가 많은데, 이것

22) 병와의 「年譜」를 보면, 병와의 나이 8세(1660년)에 그의 아버지가 마을 어른들과 海獵을 구경하는데 당시 이곳에는 많은 동네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鴻門宴古風'이라는 詩題를 주고 아이들에게 시를 짓게 하였다. 이 때 병와가 즉석에서 '龍興沛澤雲五彩 虎嘯山東風萬里'라고 지었다, 다시 '五關斬將'이라는 시제를 주어 짓게 하니, '萬金百金馬上下 三日五日宴大小'라고 지으니, 정연하게 이룬 對句와 그의 詩才를 보고 주위의 어른들이 보고 범상치 않다고 칭찬한 적이 있다.

23) 특히 그가 四書나 三經을 읽고 난 후에 자신의 감회를 술회한 작품과 자식이나 주변의 지인에게 준 贈與詩 등은 주목할 만한 것들이다.

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五書五經과 心學을 詩的으로 표현한 작품과 특정 사물에 '心'의 갖가지 기능을 이입한 詠物詩가 많은데 이것 역시 주목할 만한 작품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병와의 다양한 유형의 한시 작품 중에 現實認識과 出處觀을 글감으로 창작한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그가 出處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出處에 대한 認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出處의 문제에 있어서 병와가 인식한 가장 이상적인 出과 處는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 時中이다. 이는 바로 中節에 맞는 출처인 것이다. 그의 인생편력과 환로의 역정을 볼 때, 그는 현실 세계에 적극적으로 몰입하여 현실에 대응하기 보다는 항상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 물론 그는 특정 당파에 개입되어 있었지만,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黨色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의지를 굽혀 관직을 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주로 外職으로 전전하였고, 한 곳에 부임하여 임지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다. 이는 항상 귀거래하려는 자신의 의식적 기저에서 비롯되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출처관과 유관할 것이다. 먼저 이러한 그의 의식적 기저는 다음 작품에서 엿볼 수 있다.

...

惟我獨早孤	오직 나는 일찍이 외로운 사람되어
零丁失學媚	영정(零丁)하여 아침을 배우지 못했네.
內無程課督	집에서는 법도의 공부 독려하는 이 없었고
外乏師友忌	밖에서는 두려운 사우도 없었대네.
以此益魯莽	이 때문에 더욱 노무해졌기에
甘爲聖世棄	성세에 버려진 것 달게 받아들이네.

雖然大綱在	비록 그러나 큰 강령은 있었기에
去難就不易	물러나기 어렵고 나아가기도 쉽지 않구나.
久速皆有時	구속은 모두 때가 있는 것이니
所期惟不愧	기약한 바 부끄럽지 않을 뿐.
矧今天門隔	지금 천문과는 거리가 있으니
可否安所替	가부를 어찌 가려드리리?
設有簪履收	만약 나를 관직에 거두어 준다 해도
筋力亦難致	근력이 또한 이르기 어렵구나.
寧爲夷炭隘	차라리 백이의 탄애(炭隘)를 할망정
不作劉綿悖 ²⁴⁾	유길(劉吉)의 패려는 하지 않으리라.

...

예시는 王世貞의 시에 차운한 長篇詩의 중간 부분이다. 병와는 예시에서 출처에 대한 자신의 의식적 기저를 은근히 드러내면서, 더 이상 출사하지 않으려는 그의 단호한 신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19세에 아버지를 여의었기에 출사하여 처신하는 법[學媚]을 배우지 못했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와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黨色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의지를 굽혀 관직을 구하기보다는 명분과 의리에 맞는 정론을 지향하였다. 그래서 관직에 나아가서는 외직으로만 전전하였고, 외직에서도 파직되기 일수였다. 예시에서 자신의 이러한 去就에 대해 후회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은 거취에 나름대로의 강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취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한 久速 즉 출사할 만하면 출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고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있고 속히 떠날 만하면 속해 떠나는 공자의 출처관²⁵⁾처럼 항상 때가 있다는 것이다. 伯夷가 악한 사람의 조정에 출사하며 악한 사람과 함께 말하는 것을 마

24) 『瓶窩集』 卷2, 「辛卯生日次兪州韻」, 214面.

25) 『孟子』, 「公孫丑」. “…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孔子也…”

치 朝服과 朝冠을 입고 진흙과 숯 구덩이에 앉은 듯이 여겼기에,²⁶⁾ 孟子는 백이의 출처가 진실로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를 좁다(隘)라고 하였다.²⁷⁾ 그는 백이의 炭隘는 할지언정, 18년 동안 내각에 있으면서 사육에 밝아 아부하기를 잘 했던 明나라의 劉吉처럼 구차하게 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결국 여기서 병와는 時中의 出處 내지는 去就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출처관은 「出處」라는 한 편의 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잠을 보면, “나간들 꼭 영화를 누리는 것 아니고, 처한들 꼭 궁핍한 삶인 것 아니리. 정승이 되어 혹 부끄러울 수 있고, 가난한 삶이 혹 통할 수도 있다네. 하늘이 만든 분수를 생각하면, 영무(零茂)가 모두 때가 있지. 형세를 헤아려 의리를 따르고, 나 홀로 사사로이 하지 않으리.”²⁸⁾라고 하면서 출처에서 時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병와의 막내 아들인 李如迪이 병풍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箴言을 청하였는데, 이 글은 그가 지은 箴의 九題 중에 하나이다. 箴이 갖는 문체적 특성이 경계하거나 재난을 방지하는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지어준 이 잠은 예사롭게 쓴 작품은 아닐 터이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출처에 신중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먼저 出處의 결과물이 반드시 ‘榮窮’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때를 만나 세상에 나아간다고 반드시 영화로운 것이 아니고, 때를 만나지 못하여 은거한다고 반드시 궁핍한 삶은 아니다. 출세하여 정승이 되어도 세상에 오점을 남겨 부끄러울 수 있고, 一簞食와 一瓢飲과 같은 궁핍한 은자의 삶이라도 내 마음이 통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렇듯 병와는 出과 處, 그리고 三旌과 一瓢 등은 하늘이 만든 분수이기

26) 위의 같은 곳, “…立於惡人之朝 與惡人言 如以朝衣朝冠 坐於塗炭…”

27) 위의 같은 곳, “…孟子曰 伯夷隘 柳下惠不恭 隘與不恭君子不山也…”

28) 『瓶窩集』卷4, 「出處」, 255面, “出不必榮 處不必窮 三旌或羞 一瓢亦通 想得天造零茂皆時 量勢順義 非我獨私”

에 때가 있음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出處에서 時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출처관은 그의 많은 한시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중국 인물 가운데 출처에서 상징적인 인물을 여덟 가지로 유형화하여 1701년에 지은 「浩然亭八幅」에서 이러한 출처관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작품에서 등장한 인물은 傅說·姜太公·張良·諸葛亮·巢父와 許由·長沮와 桀溺·商山四皓·陸通 등이다. 이들 가운데 부열·강태공·장량·제갈양 등은 출세한 네 가지 유형이고, 소부와 허유·장저와 곁익·상산사호·육통 등은 네 가지 유형의 은자적 삶을 살았다. 만약 병와의 출처관이 자신의 주어진 현실에서 은거에만 몰입했거나 아니면 은거만을 강조하였다면, 이 작품에서는 전적으로 은거한 네 사람만을 글감으로 하여 작품을 완성하였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 여덟 가지 유형에 등장하는 인물은 시중에 맞게 출하거나 처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먼저 출세한 인물을 소재로 작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綸巾鶴氅洞幽冥 깊은 골짜기에 운건 쓰고 학창 입고는
 抱膝先籌鼎足形 앉아서 정족의 형세 먼저 헤아렸다네.
 出處堂堂名義正 당당한 출처였기에 명분과 의리 발랐고
 至今遺恨在街亭²⁹⁾ 지금도 가정엔 남긴 한이 있구나.

예시는 八幅 가운데 '隆中抱膝'인데, 隆中에서 초가집을 짓고 은거하고 있다가 유비의 三顧草廬의 예를 받들어 출사한 諸葛亮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삼국이 서로 대치한 난세에 제갈양은 융중의 깊은 골짜기에서 綸巾(諸葛巾)을 쓰고 학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는 몸소 밭을 가는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며 은거하고 있었다. 당시에 제갈양은 '鼎足', 즉 대치해 있는 삼국의 정세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유비의 삼고초려는 결국 그를 출사하게

29) 『瓶窩集』 1卷, 「浩然亭八幅-隆中抱膝」, 200面.

했다. 제갈양이 은거하다가 출사는 하였지만, 그의 출처는 바른 명분과 의리에서 비롯되었기에 公明正大하였다. 해서 병와는 출처가 분명한 그를 높이 평가하였고, 제갈양을 명실 공히 출세한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았던 것이다.

병와는 제갈양 뿐만 아니라, 나머지 3首에서는 출세한 인물로 傳說·姜太公·張良 등을 소재로 하였다. 殷나라 高宗은 꿈에서 보았던 부열의 肖像畵를 보고, 그를 사방에 수소문하여 찾아 정승으로 삼았고, 결국 부열은 商 王朝를 반석 위에 올려 놓은 賢相이 되었다.³⁰⁾ 강태공도 磻溪에서 낚시하다가 周나라 文王에게 천거되었는데, 이에 대해 병와는 ‘주나라의 기업을 낚은 것이 고기보다 크구나. [釣周基業大於鱗]’³¹⁾라고 하면서 강태공의 출사뿐만이 아니라, 출사한 이후에 주나라 왕조를 위해 그가 세운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장양은 圯橋의 다리 밑으로 떨어뜨린 黃石公의 신발을 주워다 주고는 황석공으로부터 兵書를 받아 漢나라 高祖에게 등용되어 項羽를 무찌르는데 공을 세웠다. 병와는 황석공이 다리 밑으로 몇 번이나 신발을 떨어뜨려 장양에게 줌게 하여 계책을 준 고사³²⁾를 인용하면서 은거해 있던 장양의 출사를 언급하였다. 이렇듯 인용한 네 사람은 자신들의 인위적인 출사라기보다는 은거하고 있다가 왕에게 천거되어 관직에 나아갔고, 이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인물들이다.

이렇듯 병와가 앞에서 언급한 네 사람은 은거하였다가 출사했던 사람들이다. 이에 반해 은거하였다가 출사할 때가 아님을 알고 끝까지 은자의 삶을 고치지 않은 인물의 고사를 예증하여 술회하였다.

30) 위의 같은 곳. 「傳巖築牆」. “夢未賈良象未肖 半生虛老濟川姿 須知版鐻當年役 先築商王不拔基”

31) 위의 같은 곳. 「磻溪釣魚」. “三千六百日垂綸 誰識文王夢已眞 莫道此翁惟取適 釣周基業大於鱗”

32) 위의 같은 곳. 「圯上拾履」. “心韓迹漢畏人知 功利先從拾履時 乍際旋尋都是術 固陵掉圍祖於師”

耳何爲洗瓢何掛	귀는 어째서 씻고 표주박은 어째서 걸어 두었나
無事山中事更多	한가한 산중에 다시 일이 많아졌구나.
外物若能移我性	만약 외물이 나의 본성을 바꿀 수 있었다면
世間安有飲牛河 ³³⁾	세간에 음우하가 어찌 있었겠나.

예시는 堯 임금 때 高士였던 巢父와 許由를 소재로 하여, 禪讓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은 은자의 풍모를 묘사한 작품이다. 허유는 요임금이 자기에게 천하를 禪讓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요임금의 말이 자신의 귀를 더럽혔다고 하여 潁水에 가서 자신의 귀를 씻었다. 당시에 소부가 이곳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려던 참이었는데, 허유가 귀를 씻는 까닭을 알고는 소의 귀를 더럽힐 뻔했다고 하면서 상류로 올라가 소에게 물을 먹였다고 한다. 소부와 허유는 은자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禪讓이나 薦舉에도 자신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더 이상 출사하지 않고 은자의 삶을 영위하였다. 병와는 예시에서 소부와 허유의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만약 외물이 나의 본성을 바꿀 수 있었다면, 세간에 음우가가 어찌 있었겠나.〔外物若能移我性 世間安有飲牛河〕’라고 하면서, 은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소부와 허유의 의지를 누구도 바꿀 수 없음과 그러한 삶을 영위하였기에 지금도 ‘飲牛河’라는 고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병와는 진정한 은자의 삶을 영위한 인물로 巢父와 許由 외에도 長沮와 桀溺³⁴⁾ · 商山四皓³⁵⁾ · 陸通³⁶⁾ 등을 예로 들어 작품화하였다. 특히 병와는 이 가운데 거짓 미치광이 행세를 하였기에 세상 사람들이 ‘楚狂’³⁷⁾이라

33) 『瓶窩集』 1卷, 「浩然亭八幅-巢許清節」, 200面.

34) 위의 같은 곳. 「沮溺耦耕」, 物於浮世貴無聲 爲是爲非所不爭 壟上一通由也間 至今人道耦耕名

35) 위의 같은 곳. 「商顏採芝」, 堪笑商山跡太勞 疴痺何必隔靴搔 杜陵佳句人皆誦 萬事如碁不着高

36) 위의 같은 곳. 「楚狂歌鳳」, 何以歌爲須察音 如其狂也豈言深 從來大小皆天分 燕雀安知鴻鵠心

불렀던 陸通을 인용하여, '옛부터 대소는 모두 하늘이 정해준 분수이기에, 어찌 참새가 기러기의 큰 뜻을 알겠는가?〔從來大小皆天分, 燕雀安知鴻鵠心〕'라고 하면서 난세에 은거한 육통의 처세를 '鴻鵠'에까지 비유하며 높이 평가하였다.

이렇듯 병와가 「浩然亭八幅」에서 8首의 작품을 통하여 굳이 대표적인 出者와 隱者의 특징적인 면을 각각 유형화하여 이를 작품화한 것은 자신의 출처를 의식하여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그가 자신과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永川에 삶의 마지막 歸依處를 정하고, 또한 이곳에 浩然亭을 건립한 공간적 의미³⁸⁾와 「호연정팔폭」을 통하여 그의 출처관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주어진 현실에서 은거에만 몰입했거나 아니면 출처관에서 은거만을 강조했다면, 「호연정팔폭」에서는 전적으로 은거한 네 사람만을 글감으로 하여 작품을 완성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양한 인물을 예증하면서 時中의 出處를 강조하였고, 자신의 주어진 현실에서도 이를 실천하였던 것이다.

37) 楚 나라의 陸通이 난세를 피하기 위하여 거짓 미치광이 행세를 하였다.〔佯狂避世〕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楚狂'이라 불렀다. 『論語』의 「微子」편에 보면, "孔子가 초 나라를 갔을 때, 그는 공자의 수레를 지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봉황새야 봉황새야 어찌 덕이 쇠했는가. 지나간 일은 간할 수 없지만 닥쳐올 일은 오히려 따를 수 있으니, 그만두게나 그만두게나 지금 정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태롭다.〔楚狂接輿 歌而過孔子曰 鳳兮鳳兮 何德之衰 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已而已而 今之從政者 殆而〕"라고 하면서, 봉황으로써 공자에 비유하고 은거하지 못하는 것은 덕이 쇠했기 때문이라고 회롱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육통이 공자와는 출처의 취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38) 浩然亭은 병와가 藏修와 後學 養成을 목적으로 1701년에 건립한 정자인데, 지금도 琴湖江 강가의 언덕에 옛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병와는 고향이 서울이었으나, 그의 先祖先 孝寧大君의 神位가 丙子亂으로 慶北 尙州에 옮겨와 있었기에 尙州의 咸昌에 세거지를 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長子와 長孫을 합창에 남겨두고 永川에 터를 잡고 이곳에서 평생 은거할 심산으로 호연정을 짓고 우거하였는데, 1년 남짓한 濟州牧使 생활을 제외하고는 이곳에 은거하며 창자 저술과 후학양성으로 보냈다.

2) 處士의 삶의 內面世界와 自樂

병외는 평생동안 12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고, 그 가운데 4년간의 내직과 8년간의 외직 생활을 하였다. 그의 생평에 비할 때 관직 생활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고, 또한 만년에는 주로 강호에 은거하는 처사적 삶으로 일관하였다. 그의 한시 작품을 보면, 그는 처사적 삶 속에서 자연을 관조하며 갖가지 경물을 관념적으로 미화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서 자신의 처신을 신중히 하며 한가롭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은근히 시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苟無青紫戀	벼슬 그리는 마음 진정 없다면
城市亦山房	성시도 역시 산방이 아니라.
習氣江湖熱	습관적 기분은 강호에 맹렬하고
風情滸黻涼	풍정의 아취는 벼슬에 냉담하네.
口談當世懶	입으로는 당세를 이야기함이 싫고
心逐暮雲長	마음은 저녁 구름을 좇음이 장구하네.
物與相終始	외물과 서로 시종이 됨을
平生已自量 ³⁹⁾	평소에 이미 스스로 헤아렸네.

예시는 康節의 安分詩에 차운하여 權斗經(1654~1725)⁴⁰⁾에게 준 작품이다. 蒼雪齋는 문장이 뛰어났는데, 특히 시에 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천의 형세, 인물의 出處, 세대의 변혁, 東方君臣의 賢否, 得失 등에도 예리한 안목이 있었는 터라, 병외는 강절의 안분시에 차운하여 자신의 출처에 대한 소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창설재에게 주었다. 그는 예사에서 출사하지 않은 은자로서의 입장과 자신의 현실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

39) 『瓶窩集』 1卷, 「次康節安分韻與權修撰天章斗經」, 209面.

40) 權斗經(1654~1725):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安東이며 자는 天章, 호는 蒼雪齋이다. 忠定公 撥의 5세손이며 李玄逸(1627~1704)의 門人으로 李栽(1657~1730) 등과 교유하였다. 저서로는 『蒼雪集』이 있고, 편서로는 『退溪先生言行錄』과 『陶山及門諸賢錄』 등이 있다.

다. 관직에 대한 집착과 연정이 진심으로 없다면 변화한 세속의 저자거리라도 은자가 사는 산방과 다르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處士의 궁극적인 귀의처 내지는 현실정치와의 대척처를 구태여 깊은 강호자연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공명이나 부귀 등의 세속적 이해관계와 관직에 대한 집착과 연정이 진심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관직에 대한 집착과 연정이 진심으로 없다면 城市도 정신적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安息處가 될 수 있다. 제 5구와 6구에서, 관직이나 세속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세의 일에 대해 논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게을러지고, 결국 해저물녘에 떠있는 구름에 마음을 돌리고 한가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 관직과 공명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처신은 다음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다.

苦或爲甘熱或寒	쓴 것이 달기도 하고 더운 것이 차기도 하니
此生於世貴無干	세상살이에 관직 구하지 않음을 귀하게 여겼네.
莫將虛譽騰人口	헛된 명예 남의 입에 오르지 말았으면
休息江湖恐不安 ⁴¹⁾	강호의 휴식에 혹 불안하지는 않을런지.

병와가 주로 활동했던 17세기의 정계는 老少分黨과 그 결과의 老少黨爭, 그리고 禮訟論爭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그는 이러한 정란 속에서 벼슬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黨色을 드러내기보다는 명분과 의리에 맞는 정론을 지향하였다. 예시에서 '苦甘'과 '熱寒'은 당시의 혼란한 정세를 형용한 시어들인데, 일신의 영달과 공명을 구하려는 그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헛된 명예가 다른 이의 입에 오르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의 처사적 삶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인 패배로 인한 他意的

41) 『瓶窩集』 1卷, 「有感」, 196面.

은거가 아니었기에, 강호에서 휴식하면서 自足的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搏飯噉羹飽卽休	밥 먹고 국 마시니 배불러 쉴 만하고
此心常足更何謀	언제나 이 마음 넉넉하니 무엇 다시 도모하라.
經綸在室規宜大	집에서도 나라 경륜함은 규모가 마땅히 커야하고
坐臥隨時養亦優	언제나 때에 따라 수양함 또한 넉넉해야 하네.
無事可當王謝貴	하는 일 없으니 왕사의 귀함에 해당될 수 있고
有書寧羨泰恒遊	책 있는데 어찌 태항의 놀음을 부러워하리.
茲歡倘使朱門覺	이런 즐거움 주문에서 깨닫게 된다면
夢裡浮榮恐不求 ⁴²⁾	부화한 꿈 속 영화 아마도 구하지 않으리.

「處窮」이라는 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질적인 풍요나 세속적인 욕망의 이미지는 발견할 수 없다. 관조적인 서경의 미학보다는 처사적 삶의 내면세계를 통한 그의 自足的인 흥취를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다. 제1구와 2구에서는 삶에 기본적인 조건, 즉 '飯羹'이 갖추어졌기에 배불리 먹으니 휴식하기에 넉넉하고[飽卽休], 자신의 의지인 心的 自足에 더 이상 바라고 찌할 일이 없다[更何謀]고 하였다. 제 5구와 6구에서는 王導와 謝安, 그리고 泰山과 恒山の 고사를 인용하여 '無事'와 '有書'와 같은 궁벽한 현실 속에서 한가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王謝'는 바로晉 나라 때의 名家였던 王導와 謝安의 집안을 말하는데, 현실 공간에서의 '無事', 즉 無爲는 관직에 대한 집착이나 공명에 대한 연정이 없기에 너무나 한가하고 이에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王導나 謝安의 집안에 값할 정도로 만족하고 있으며, 볼 수 있는 책이 있기에 泰山과 恒山の 유람도 부러워하지 않고 있다. 결국 그의 이러한 현실 공간을 만족하며 헛된 꿈 속의 영화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였다.

42) 『瓶窩集』 2卷, 「處窮」, 219面.

...

嗟吾厭塵喧	아! 나는 시끄러운 세속을 싫어했기에
飄零獨在澗	쇠락하여 홀로 산골 물가에 산다네.
竊仰垂天翼	그윽히 봉새의 날개 우러러 보고
何異斥中鷓	어찌 척중에 종달새와 다르랴.
養精心怡靜	정심을 기르니 마음이 기쁘고 고요하며
脫巾衣懶攢	건과 옷을 벗으니 다시 입기 게으르네.
尺朽棄宜工	척후를 버림은 양공의 당연한 재주이고
寸斑窺未戩	촌반을 엿봄은 아직 완전한 범이 아니네.
始覺邯鄲生	마침내 한단생을 깨달으니
龍婦皆夢々 ⁴³⁾	총욕이 모두 꿈인 듯하구나.

...

여시는 蔡彭胤(1669~1731)⁴⁴⁾에게 화답한 長篇詩의 한 부분이다. 작품을 관류하는 自意識의 대체는 脫世俗의 욕망과 虛名에 대한 자각이다. 먼저 제1구와 2구에서는 세속과 그렇게 화해롭지 못한 자신의 현재 입장을 피력하면서, 정쟁의 시끄러운 세속을 싫어하는 그였기에 관직에서 물러나 홀로 깊은 산골 물가에 살고 있다. 제 3구와 4구에서는 출사하여 큰 공명을 얻은 사람이나 자신과 동등한 처지의 은자를 각각 봉새(垂天翼)와 종달새[斥中鷓]에 비유하면서 양자가 서로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제 5구와 6구에서는 自然親和的 情感이 엿보이며, 세속과 단절된 공간에서 나름대로 興趣와 自樂을 만끽하면서 자족하고 있다. 마지막 구에서는 도사가 준

43) 『瓶窩集』 1卷, 「酬蔡學士仲蒼彭胤」, 203面.

44) 蔡彭胤(1669~1731):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平康이며 자는 仲蒼, 호는 希菴·恩窩이다. 1687년에 진사가 되고, 1689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검열을 지낸 뒤 그해 賜暇讀書하였다. 그 때 숙종의 명에 의하여 五七言·十韻律詩를 지어 후인 나라를 빛낼 인재라는 찬사와 함께 賜醴의 영예를 입었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렸고, 특히 詩文과 글씨에 뛰어났다. 海南의 頭輪山 大花寺重創碑와 大興寺事蹟碑의 碑文을 찬하고 썼다. 저서로는 『希菴集』 29권이 있고, 『昭代風流』를 편집하였다.

베개를 베고 꿈 속에서 갖가지 영화를 누리다가 깨어나서는 결국 허망함을 느꼈다는 唐 나라 邯鄲의 盧生처럼 허명이나 공명 따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병와가 처사적 삶 속에서 느끼는 興趣와 自樂의 경지가 어떠한지는 다음 작품에서 잘 나타나 있다.

...

絶勝山居興	빼어난 경치에 사는데 흥취 일어나고
何憂虎攫入	어찌 호랑이 들까 근심하리오.
藉石稀囊枕	돌베고 자다보니 베개 벨 일 없고
看書獨掩窓	책을 볼 때면 창문을 닫는구나.
神交付六友	신기한 교제 옥우에게 맡기고
相長不相降	서로 도와 주기에 쇠락함이 없네.
山雀巢人屋	산 참새가 사람사는 집에 둥지 틀고
沙禽解客愁	모래사장 새는 나그네 시름 풀어주네.
如何仙裏鶴	어찌서 선계에 사는 학이
隨我在城頭	나를 따라 성 꼭대기에 있는지.
雲疊花叢白	구름이 쌓이니 꽃무더기 더욱 희고
杯傾竹葉青	잔 기울이니 댓잎이 더욱 푸르게 보이네.
堪嗟名利客	아! 명리 탐하는 저 나그네들
狗苟又蠅營	개처럼 구차하고 파리처럼 놀고 있네.
氣槩登山嶮	기개는 산에 오른 듯 높기만 하고
生涯傍水居	생애는 물가에서 살아가는구나.
雖然心不局	이런 삶에도 마음이 얽매이지 않고
觀物勝觀書	경물을 보노라니 책보는 것보다 낫네.
洗心頻看易	마음을 씻다가 거듭하여 『주역』을 보고
牽輿強題詩	일어나는 흥에 억지로 시를 짓노라.
莫怪遊觀小	유람이 적다고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風情臥亦知 ⁴⁵⁾	풍정은 누워서도 알 수 있다네.

예시는 강호에 은거하며 유유자적하는 은자의 삶을 노래한 長篇詩의 일 부분이다. 이미 전반부에서 絶景에 은거하여 사는 즐거움이 극에 달하여 흥취가 일어남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신기한 사귄들 六友(六心朋), 즉 靜友의 난초(蘭)·直友의 대나무(竹)·淨友의 연꽃(蓮)·高友의 소나무(松)·節友의 국화(菊)·淸友의 매화(梅) 등에 의탁하고, 이들로부터 서로 도와 자람으로써 삶이 쇠락하거나 해로움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의 현실 공간은 자연친화적인 삶이었기에, 가까이에는 산새가 자신의 집에 내려와 등지를 틀고, 멀리 모래 사장에 있는 물새는 자신의 시름을 풀어주기에 충분하다. '雲疊'과 '杯傾'은 시인의 심상을 더욱 고조시킨다. 쌓인 구름 때문에 꽃밭의 꽃이 더욱 하얗게 보이고,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대나무의 잎이 더욱 푸르게 보인다.

결국 병외는 탈속한 자신의 현실 공간에 최대한 몰입하고 있다. 예사롭게 볼 수 있는 학을 자신의 현실공간에서 仙界의 학으로 오인하여 착각하였기에, 현실공간에서 선계 공간으로 轉移시키고 있다. 신선은 장생불구가 그 궁극의 목적이지만, 현실적 가치관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근본적 욕망에서 이의 추구가 나타난다. 그래서 명리를 탐하는 사람을 개의 구차함(狗苟)이나 파리의 삶(蠅營)에 비유하는 한편, 이에 반하여 세속의 명리를 버리고 마음이 세속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물가에 은거하는 은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境界에서 그는 觀物을 하기도 하고 洗心을 하기도 하며, 틈틈이 『주역』을 보기도 하다가, 終局에는 일어나는 흥취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감회를 술회한다. 주체의 내면에서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이 고개를 들지 않을 때야 이러한 참된 흥취는 가능하며, 정쟁의 현실마저 몰각할 때 한층 상승한 선계라는 경지의 정점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45) 『瓶窩集』 1卷, 「寓興」, 202-203面.

...

惟應白雪偏知意 흰 구름만이 내 심정을 알아준다.
 自保紅塵不係心 속세에 사는 것 관심이 없네.
 莫道此行無所得 이 행차에 얻은 바 없다고 말라
 鍊丹吾欲上雲岑⁴⁶⁾ 내 신선 약 먹어 하늘에 오르려 한다.

병와는 삶의 지향이나 처세의 면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에 비해 짧은 기간이지만 出仕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의식적 기저에는 언제나 출사보다 歸來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는 아무 연고도 없는 영천에 호연정을 짓고, 이곳에서 평생을 보낸 그의 인생편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시에서도 그의 이러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紅塵’, 즉 세속에 마음이 없음을 어느 누구도 알아 줄 사람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공간의 상관물인 白雲만은 알아 줄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제 4구에서 처럼 현실을 넘어 이상세계로의 지향의 방법으로 신선이 되고, 그런 신선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鍊丹을 渴求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는 맹목적으로 신선을 믿으며 현실에서 영생불사를 실현해 보겠다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상상의 날개를 펴서 仙界 내지는 鍊丹과 같은 도가적 은둔을 상징하는 것을 시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병와의 이러한 仙界의 憧憬은 그의 한시 작품에 간헐적으로 볼 수 있다.⁴⁷⁾ 결국 이는 현실 공간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은일지향적 사고이며 초월적 의식세계이고 심적 화해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46) 『瓶窩集』 1卷, 「酬沈承旨直夫季良」, 204面.

47) 『瓶窩集』 1卷, 「酬蔡學士」, 204面. “一蹶眞仙界 心空色不空 川肥前夜雨 帆飽夕陽風 魯叟桴無外 秦童海有中 最憐東蹈地 今古幾英雄”

4. 結論

瓶窩 李衡祥(1653~1733)은 조선조 후기의 문신이며 각양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학자이다. 그는 12년간의 관직 생활을 제외하고는 永川에 浩然亭을 짓고, 이곳에서 저술과 후학양성을 하며 평생을 보냈다. 본고에서는 그의 삶의 지향과 處身의 문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그의 出處觀을 살펴보고, 한시 작품을 통하여 出處·行止·行藏·去就 등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규명해보았다. 병와는 81세를 일기로 下世할 때까지 12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고, 그 가운데 4년간의 내직과 8년간의 외직생활을 하였다. 그의 인생편력과 학문적 역량에 비춰볼 때, 짧은 관직생활과 외직으로 전전하게 된 것은 그의 출처관과 정쟁의 현실 속에서 특정한 黨에 얽매이지 않았던 그의 黨色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병와는 49세(1699년)에 慶州府尹을 사직하고, 결국 그는 생의 마지막 歸依處를 永陽(永川)에 정하고 이곳에 호연정이라는 우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가 아무 연고도 없는 영양에 귀래하여 우거를 마련한 것은 세속과의 굳은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는 이곳에서 강호에 사는 은자의 삶을 즐기며 평생을 보내게 된다. 그는 삶의 출처를 논의하면서 孔子·顏回·伯夷·柳下惠·伊尹·甯武子 등의 삶을 예증하고, 다시 예증한 인물들의 삶을 春秋와 夏冬에 비유하여 자의식을 피력하였는데, 그는 선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出[行]이나 處[藏] 가운데 한 가지에만 자신을 깨끗이 하면서 禍福에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利害와 욕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깊은 산속에 고고하게 핀 기이한 꽃[奇花]이라 비유하고, 이는 진정한 신하의 의리가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결국 그가 규정한 가장 이상적인 行藏은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 時中의 출처이며, 中節에 맞는 출처인 것이다. 특히 그는 處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선비가 때를 만나지 못해 은

거하게 된다면(處), 현실이 고달프고 궁핍할지라도 動하지 않고 靜함으로써 은자의 진면목을 잃지 않기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단적인 예로 도연명을 예증하고 귀래하여 편안함(安)을 잃지 않은 것은 時中의 은거와 궁핍한 삶 속에서도 動하지 않고 靜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도연명의 귀래한 은자적 삶과 현실인식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병와는 현실 세계에 적극적으로 몰입하여 대응하기보다는 항상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 물론 특정 당파에 개입되어 있었지만,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黨色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의지를 굽혀 관직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의 한시 작품을 살펴보면, 그는 出과 處, 그리고 三旌과 一瓢 등은 하늘이 만든 분수이기에 때가 있음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出處에서 時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浩然亭八幅」에서 중국 인물 가운데 출처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傅說·姜太公·張良·諸葛亮·巢父와 許由·長沮와 桀溺·商山四皓·陸通 등을 예증하면서 부열·강태공·장량·제갈양 등은 출세한 네 유형으로, 소부와 허유·장저와 절의·상산사호·육통 등은 네 유형으로 항목화하였다. 만약 그의 출처관이 자신의 주어진 현실에서 은거에만 몰입했거나 아니면 은거만을 강조하였다면, 이 작품에서는 전적으로 은거한 네 사람만을 글감으로 하여 작품을 완성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時中의 出處를 강조하였고, 자신의 주어진 현실에서도 이를 실천하였던 것이다.

출처의 문제와 관련하여 병와 한시에서 또하나의 특징적인 자질은 處士的 삶의 內面世界와 그 自樂을 들 수 있다. 그는 관직에 대한 집착과 연정이 진심으로 없다면 변화한 세속의 저자거리도 은자가 사는 산방과 다름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처사의 궁극적인 귀의처 내지는 현실정치와 對蹠處를 구태여 깊은 강호자연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공명이나 부귀와 같은 세속적 이해관계와 관직에 대한 집착과 연정이 진심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호에 은거한 처사적 삶은 정치적인 패배로 인한 타의적 은거가 아니었기에, 강호에서 휴식하면서 自足的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세속과 단절된 공간에서 나름대로 興趣와 自樂을 만끽하면서 自足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탈속한 자신의 현실 공간에 최대한 몰입하면서 예사롭게 볼 수 있는 학을 자신의 현실 공간에서는 仙界의 학으로 오인하여 착각한 것은 현실공간을 선계의 공간으로 轉移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주체의 내면에서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이 고개를 들지 않을 때라야 참된 흥취는 가능하며, 정쟁의 현실마저 몰각할 때 한층 상승한 선계라는 경지의 귀의처에 이를 수 있다. 그는 맹목적으로 신선을 믿으며 현실에서 영생불사를 실현해 보겠다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상상의 날개를 펴서 仙界 내지는 鍊丹과 같은 도가적 은둔을 상징하는 것을 시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결국 이는 현실 공간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은일지향적 사고이며 초월적 의식세계이고 심적 화해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瓶窩 文學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주로 그의 樂府 文學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학문의 다방면을 두루 섭렵하여 이를 저술로 남긴 박물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값하는 多樣多量의 역저를 남겼다. 앞으로 그가 남긴 다양한 양식의 문학 관련 자료를 통하여 그의 문학론을 정치하게 조명해보고, 아울러 그의 한시 작품을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해보는다면, 그의 문학이 갖는 문학사적 위상이 어느 정도 정립될 것이며, 병와 문학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 및 역저 자료

『論語』

『孟子』

李衡祥, 『瓶窩集』(韓國文集叢刊 제164책), 民族文化推進黨, 1998.

鄭太鉉·車柱環·柳正東 譯, 『國譯 瓶窩集 I II III』,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2. 논저

강진섭, 「瓶窩 李衡祥의 漢譯歌曲 小考」, 『국어국문학』 제102호, 1989.

권영철, 「樂學便考에 대하여」, 『도남 조운재박사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76.

權寧徹, 『瓶窩 李衡祥 研究』, 한국학연구원, 1978.

권오성, 「瓶窩 李衡祥의 樂論 연구」, 『한국학논집』8, 1985.

김용환, 「瓶窩 樂府의 特性과 作家意識」,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백원철, 「瓶窩樂府小考」, 『공주사범대학논문집』 제22집 별책, 1984.

부영근, 「瓶窩 李衡祥의 漢詩 研究」,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송민선, 「瓶窩 李衡祥의 禮論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연경아, 「瓶窩 李衡祥의 著述觀 연구」, 청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진갑곤, 「瓶窩 李衡祥의 詩經意識에 나타난 反朱子學的 요소」, 『한국의 철학』 제 21호, 1994.

황태희, 「瓶窩 李衡祥의 樂府詩 研究」,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Reality Awareness and Poetic World of Byungwai

Oh, Yong-Won

Byungwai, Lee Hyeong-Sang(1653~1733), is a scholar who was a civil minister of the late Chosun period, and leaved an enormous amount of writings. He, except for the period of 12 years in the government service, built Hoyeon-Jeong, a kind of a village schoolhouse, in Yeongchon and then devoted his lifetime to writing books and cultivating young students the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his view of Chul-cheo(出處), going to obtain a government position and leaving) including his life' orientation and behavior matters, and then examine how he has recognized the matters such as Chulcheo, destination, traveling outfit, course of action, and has also expressed them through his poems work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 He, in debating on the Chulcheo in life, illustrated, as an example, the life of Kong Ja, An Hoi, Bae Yi, Yu Ha Hei, Lee Yun and Nyong Mu Ja, etc., and again expressed self-consciousness comparing the life of people illustrated to the spring & autumn and fall & winter by metaphor, the most ideal traveling outfit prescribed by him is the one of being timeliness of not clinging to a place and of being in accord with a procedure. Especially, he has showed a deep interest in place, and has emphasized that, if a classical scholar misses an opportunity and then lives in retirement, he should not loss a true self of a hermit scholar by not being easily agitated but keeping calm, even though he is very tired and is in needy circumstances in the realities. As an example, it's thought that the thing, that Do Yeon Myeong retires into the country and does not seek a life of ease, is originated from his keeping calm, not being agitated in a life in retirement and needy circumstances. So, Byungwai set a high value on the life as a hermit scholar like that, and the reality consciousness of Do Yeon Myeong.

Byungwai's poems refer to the fact that there is a time for his leaving home and place to remain, and Sam-jeong(三旌) and Il-pyo(一瓢), etc., because they are a social standing made by heaven. So he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eing timeliness in Chul-cheo. He, in the work called as Ho-yeon-jeong-pal-pok, has classified Bu yeol, Gang tae gong, Jang ryang and Je gal ryang into the 4 types of the person who succeed in life while doing multiply illustrations of symbolic characters in Chul-cheo among ancient Chinese characters, and So bu & Hur yu, Jang jeo & Geol ik, Sangsansaho, Yuk tong into the another 4 types. If a Chul-cheo view of Byungwai was a living in retirement in his own given realities or else placing an emphasis on only his absorbing in being lived in retirement, he would have written his works about only the 4 persons, as a subject matter for writing, who had lived in retirement. Thus, he has emphasized a Chul-cheo of being timeliness and also practiced it in his own given realities(circumstance).

Concerning the matter of a Chul-cheo, another characteristic of Byungwai's poems is the inner world of life as a scholar in retirement. Since his life of living in retirement at a retreat in a whirlpool of party strifes was not caused by political defeat, he could lead a self-sufficient life while taking a rest at a retreat, and has been self-sufficient enjoying fully its own taste at the space of the secular world and of being cut off.

Furthermore, he has transferred the space of realities into the one of the world of an unworldly person in that he has mistaken a crane for the one of the world of an unworldly person in his own space of realities while being absorbed in his own space of realities of being free from conventionality. He has used what symbolizes a taoist retirement from the world such as the one of an unworldly person or Ryeon-dan(鍊丹) spreading his wings of imagination.

Finally, it was a seclusion-oriented thought of keeping a fixed distance from the space of realities, a transcendental world of consciousness, and a space of mental reconciliation.

Key Word

Chul-cheo(出處), Course of action(去就), Destination(行止), Movements and keeping clam(動靜), self-enjoying(自樂), Retiring from the world(隱遁), Retired scholar(處士), Being free from the trammels of ordinary life(脫世俗), Self-satisfaction(自足), Taste(興), The world of an unworldly person(仙界)